

한강팔경

우리가 진정 숲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도시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숲과 도시는 신이라는 이름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이다. 흔히 도시는 인공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잠시 눈을 돌려 저 자연의 생태를 바라본다면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개미의 집과, 바쁜 날갯짓으로 하늘을 오가며 부지런히 자신의 둥지를 짓는 까치들의 행위들은 우리의 그것과 아무 다른 점이 없다. 물론 기본적인 방식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면 이 도시에는 무엇이 있을까? 참으로 행복하게도 우리는 도시를 이룰 때 무엇보다도 산과 물을 중요시했던 전통이 있었다. 지금 우리 도시들이 아무리 피폐해졌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자연의 요소는 곳곳에 있다. 실제로 한국의 어느 도시를 가도 조그만 강이라도 하나 없는 곳이 없다. 야트막한 동산 하나라도 없는 곳이 없다. 한국의 대표적인 거대 도시 중의 하나인 수도 서울만 보더라도, 비록 그 주변의 풍경은 말 그대로 살풍경이지만 도도히 흐르는 물결 하나만으로도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막연한 풍경을 도시민에게 제공한다.

사실 나는 나 혼자만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한강의 신팔경을 꼽아본 적이 있다. 옛사람들의 풍류와 정취를 가늠하기에는 이미 우리의 풍경들이 너무 많이 변해버려 거기에 견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심했던 터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 지속적인 풍경보다는 한 계절에 한하여, 심지어는 순간에 한정되어 손꼽히는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 자체도 나에게서는 기쁨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순간의 풍경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만큼 나 자신 이 도시를 섬세하게 보며 살았던 반증일 수 있었을테니 말이다. 도시는 자연과 달리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풍경을 보여준다. 반짝이는 순간들 흘러가는 도시에서 내가 꼽은 풍경의 첫째는 응봉의 개나리이다.

이른 봄 동호대교를 건너오며 마주치는 옥수역 근처의 야트막한 봉우리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개나리는 정신마저 아찔하게 하여 우리를 봄날의 기분 좋은 혼미로 거듭나게 한다. 봄날의 강과 노오란 개나리가 피어있는 산 전체의 모습. 나는 개나리가 피는 계절마다 동호대교를 건넌다.

둘째는 지금은 보수 공사 중인 늦은 저녁의 당산철교이다. 퇴근 무



함성호
건축가 · 시인

렵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한강을 건너 올 때면 온통 짙은 쪽빛으로 차창이 물들어 가는 청색의 황홀경을 느껴볼 수 있으리라. 당산철교가 개통이 되면 나는 다시 그 쪽빛에 몸을 감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양화진의 절두산 성지이다. 양화진의 풍경이야 옛부터 유명했지만 지금 그 절경은 남아있는 암벽의 부분으로 짐작만 갈 뿐, 지금은 뭉너뭉너해도 우리나라 초기 현대 건축가 중 한 분이신 고 이기태 님의 작품인 절두산 성지는 서녘을 배경으로 서있는 둥근 지붕과 열주의 조화

가 피의 역사를 승화시켜 고고한 아름다움을 한강변에 뿌리고 있다.

넷째는 자유로이다. 서울과 일산을 연결하는 자유로는 비현실적인 길이다. 저녁의 풍경과 아침이 다르고 겨울과 여름이 다르다. 특히 장마철의 자유로와 겨울을 나려 온 철새들과 갈대, 그리고 차량들의 속도와 해가 지는 자유로의 노을은 가히 환상이다.

다섯째는 잠수교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이다. 잠수교는 그 특성상 우리에게 아주 특이한 관점을 제공한다. 한강의 다리 중에서 제일 얇은 다리라서 그 곳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마치 나룻배를 타고 바라보는 것 같은 풍경을 우리에게 준다. 저 아름다운 도시의 불빛을 보라.

여섯째는 반포대교를 지나자마자 강남상가 아파트의 숲에서 울어제치는 여름철 매미들의 울음소리이다. 한여름 도시의 녹음 속에서 잠이 확 깨게 만드는, 7년을 땅속에서 참아 드디어 터져 나오는 음악을 들어라.

일곱째는 이른 여름 밤섬의 물에 잠긴 버드나무이다. 강변 도로를 간다든가, 서강대교나 마포대교를 건너다가 열은 녹색 앞들을 끼워내며 밀둥이 물에 잠긴 밤섬의 버드나무들은 먼 곳에 시집 간 누이들의 안부를 궁금하게 한다. 어디 길에라도 내려 엽서라도 쓰고싶게 만드는 밤섬의 버드나무들은 무언가에 골몰해 있다.

마지막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에서 옥수를 건너오는 물빛의 눈부심이다. 정오의 중심에서 서쪽으로 막 기운 태양의 입사각을 받아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는 물빛, 그 출렁이는 빛.

떠나고 싶거든 걸음을 멈추고 우선 자기 안의 풍경을 숙고해볼 일이다. 